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법공양 페이지

다 놓아 무심돼야 윤회에서 벗어나

☞ 15면에서 계속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요. 아니면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해결 방법을 못 찾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근심과 두려움의 나날입니다. 부디 제가 이 역경을 헤치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열어 주십시오.

답 여러분을 여러분이 형성해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딴 놈이 살려 줍니까, 뺏아갑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서 나온거니까 여러분 한마음 속에다가 되놓고 ' 한마음 속에서 나온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해결해'하고 탁 집어던지고선 나는 그냥 슬기롭게 살지 뭣 때문에 신경쓰고 아둥바둥하고 그럽니까, 참 이상스러워요. 왜 이상스럽게 삽니까! 돈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소꿉장난 할 때에 종이로다 돈 만들어서 놀죠? 그런거와 같은 거예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 다 거두어 가는데, 허! 그거 이 몸뚱이 씻고 닦고 하던 것도 다 거두어 가는데 뭘 짊어지고 댕깁니까. 나 쓸 때에, 나 쓸 때에 틀림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나 쓸 때에 궁색하지 않게, 쓸 때에 꼭 쓰게끔만 된다면 그거는 이 왕자 부럽지 않은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절에 어떤 신도가 울고 불고 왔어요. 애가 다섯인데 남편이 죽었대요. 그런데 전세를 들었다가 전세를 다 까먹고 사글세로 사는데 그 사글세조차 다 까먹었으니까 그 집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추녀끝에다가 짐을 내놓고서는 울면서 왔어요. 비는 부실부실 오는데 말입니다. 허허! 참 기가 막히더군요. 그때에 내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면 그냥 곽 주었을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깐 나도 그랬죠. '니가 있다면 니가 줄 것이고 니가 없다면 못 줄거야. 니가 있으면 줘!' 했어요. 정말예요. 그렇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가을비가 내리는데 그렇게 한 걸 생각해보세요. 울면서 그냥 갔죠. 그랬는데 조금 있더니 누구 집에 뛰어가서 전화를 했는지 전화가 왔는데, 비를 맞고 울면서 가는데 똘똘 뭉친 신문이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뭐 막기라도 한다고 그 신문을 들고 집엘 갔는데, 집엘 가서 펴보니깐은 거기 돈이 다 들어 있다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면 좋으냐고…, 경찰서에 갔다 주느냐 어쩌느냐 그러길래,"아니다, 부처님이 너 준거니까 방 얻어"그랬죠.

이론으로 알고 학술로 알고 아는 거를 대단하게 생각지 마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하나하나 실천을 하면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자기를 낮추세요. 낮추시면서 항상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부모 자식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리따운 마음이 바로 사랑보다 더 진한 자비입니다. 우리가 사랑 사랑 그러는데 사랑이 뭐 말라빠져 죽었어요? 조금만 저거하면 '흥, 사랑 언제 했더냐' 하고선 그냥 배신들을 하고 온통 죽어라 때리고 이러는데 그게 무슨 사랑이예요? 응?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언제 어느 때나 항상 할 수 있는 자신의 근본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사랑이예요. 그러니 자기 안의 해결사를 내버려두고 허방지방 밖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주인공을 믿으세요. 지극하게 믿고 맡겨 놓으세요. "당신이 만들어서 내놓은 일이니 당신만이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하고 일임하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화를 내어 잘못 일깨우면…

문 불친절한 공무원에게 화를 내어 잘못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때 어떻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지요? 사회에 불의가 있다면 바로 세우려고 해야하지 않을 까요?

답 자기가 없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싸우는 것도 보고 죽이는 것도 보고 죽는 것도 보는 거니 그걸 원망하지 말고 각자 자기탓으로 돌려야합니다. 또는 사회가 어떠니 하고 질문 한 거와 마찬가지로 내 가정이 어떠니 내 남편이 어떠니 자식이 못됐느니 하지 말고 절대 밖으로 끄달리지 말라 바로 네 탓이다, 가정에서 좀 잘못된 게 있어도 꼭 말로 하지 말고 좋은 말은 해주고 말을 해서 언짢은 일이라면 안으로 굴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두 수효를 헤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한 생각에 두루 내 아니 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생각이 그렇게 귀중하고 우리 나라를 다 쥐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마음의 핵심이 아닐까요?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몸은 지수화풍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지수화풍 아닌게 없잖습니까? 그러므로서 우리는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재료로 있다고 봅니다. 그럼으로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생각에 달려있다. 불이 번져나가면 안되니까 번지지 않도록 해라." 이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마음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단히 비유하자면, 미국이다 할지라도 바로 앉었는 자리고, 저 달나라라고 할지라도 앉은 자리고, 멀고 가까운 게 없어. 대천세계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야. 몇 억겁 광년이 된다 할지라도 앉은 자리란 말이야. 그런데다가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국내의 문제라든가 가정문제라든가 사회문제라든가 이 발판이 제대로 완고히 틀이 잡혀서 서있는 그런 형편이 못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되긴 됐으나 우리가 정돈이 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정돈이 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아요. 마음이 한데 뭉치지 않는다면 모두가 정돈이 되지 않는 것이죠.

물론 많이 마음들을 참 개발하고 뭉칠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한생각이 만명이 그렇게 몸들이 일어나서 한데 뭉친다고 애쓰기보단 한 사람이 한생각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는 얘깁니다. 몸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생각이 한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경에도 석존이 꽃 한송이 드는데 우주 전체가 들린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마음을 깨달아서 전체가 생각 아닌 마음의 한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한 생각을 잘 내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장부가 되시라는 얘깁니다.

번뇌 끊지 않고 열반 드는 까닭

문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부처님이 인정하는 좌선이라 하였습니다. 왜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어야 합니까. 번뇌를 끊어야만 열반에 드는 것은 아닌지요.

답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니라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요. 그걸 아무리 끊은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자유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될 수 있는 과정이 어떻게 있을 것이며, 바로 목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도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요.

그래서 저는 신도님들에게 번뇌는 끊을 게 아니라 놓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놓는 공부가 여간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놓는 공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며, 둘째는 두루 우리가 왕래할 수 있으며, 또 셋째 같이 한자리 할 수 있으며, 또는 같이 굴릴 수가 있으며 나투어 굴릴 수가 있으며 광대무변하게 행을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은 자신의 능력이 두루 같이 함으로서의 모든 게 하기 때문에 첫째 나를 발견하는 데는 놓지 않는다면 나를 발견해서도 그것은 얽매여서 오히려 미치광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습을 녹이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미해질 수가 있고 오히려 나쁜 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본래 지수화풍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앉았으면은 편안하고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수행이 되겠지만은 정작 급한 일이 닥치거나 활용할 때에는 한푼어치도 못하게 되는 수가 있어요. 막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놓지 않으면 안된다. 놓지 않으면 얻을 게 없다. 요만한 거 하나라도 놓지 않으면은 그거는 얻지 못해요. 이 세상에 몽땅 놓았기 때문에 몽땅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몽땅 놓지 않는데 몽땅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놓는데에 얻을 수도 있고, 모든 걸 굴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다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놓는데는 모든 5가지가 지금 다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놓는다는 것은 듣는 것도 놓는다, 보는 것도 놓는다, 남의 마음을 아는 것도 놓는다, 맛을 아는 것도 놓는다, 냄새 맡는 것도 놓는다, 또는 우리가 남이 어떻게 지내온 거를 안다하는 것도 놓는다. 이 전부 놓지 않는다면은 전체 두루 볼 수가 없고 전체 두루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놓아야만 전체 어느 걸 보거라도 어떠한 벌레 하나를 보더라도 과정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또 만날 수가 있고 같이 할 수가 있고 보이지 않는 중생도 제도하고 보이는 중생도 제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바로 놓지 않는다면 습에 의해서 행에 끄달리고 그래서 자기를 깨우쳤다 하더래도 그건 깨우침이 미해지고 말아버려요. 그러기 때문에 첫째 놓는다는 게 여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림 · 최주현

기독교에 대한 스님의 견해

문 큰스님 저는 불교와는 별로 인연이 없었으며 어려서부터 기독교 즉 예수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것을 듣고 신앙이라는 것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는 막연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전통종교라는 느낌정도)어쩌다가 불경을 접하고 또 큰스님 저서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기독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한번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어떠한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예수그리스도를 한 분의 성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큰스님께서는 "다른 이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그러한 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예수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근거로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평안을 누리고 영적으로 고양되는 경험들을 가질 수 있는지요. 그리고 성령님(요한복음 14:26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의 활동이라고 밖에는 보기 힘든 현상들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병고침이나 방언, 정신적인 각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큰스님의 진실과 기독교의 진실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제가 생각할때는 큰스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부인하게 되며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면 큰스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본질은 하나라고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지만 제 짧은 머리로는 절대 이러한 것은 양립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수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큰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 기독교의 고상(苦象)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때는 진리입니다, 하나의 진리를 구성해서 알게되면 알게된 그 사람이 '임' 이 됩니다, '임'.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로 돌아가는 진리이지 어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주처에 모두, 지금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로 다스리는 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못났든 잘났든 나부텀 믿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고 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밥 한그릇 가지고 일체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되남느니라."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타의에 믿질 않고 너가 너 자신을 믿기 때문에 공덕이 되느니라. 타의의 이름을 믿거나 형상을 믿으면은 도깨비 장난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귀신주머니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행동과 같다고. 그건 무슨 일이냐? 각자 너를 믿지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이렇게 말을 하셨더라면 좋을 걸 '나를 믿지않고' 하니깐 지혜가 부족했던지 각자 자기라는 걸 모르고, 예수님이 잘못한 건 아니죠. 나를 믿지… 각자, 각자 소릴 안해서 그렇죠. 그래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 장난과 같고 귀신 같으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를 믿지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50%의 예수님 모습으로 그냥 달겨들은 겁니다. 그러면 50%만, 정신계의 50%는 죽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체로써 떠나지 못해, 왜냐하면 그 대적하던 복받치는 그것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신이 올랐다면은 아주 큰 신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한국말이 그냥 나오지마는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즉 말하자면 바로 거기에서 연결되거든. 영체로 돼 있는 건 사람에게 갖다 탁, 영과 영이 둘이 아니니까 영끼리 한데 합쳐집니다. 합쳐지면 그게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네들이 지금 믿는 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지구 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 부처님이 가르치는 거는, 도 아닌 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우주전체를, 법계를 싸고 전체 이 혹성뿐만 아니라 전체 생명체의 꾸러미가 다 수없이 있는 그 자체를 두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 없이, 그러니까 죽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다 살았다 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윤회에 걸려서 벗어날 수 없다, 너희들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도 입으로 맛을 아는 것도 다 놔버려라, 좋은 옷 나쁜 옷 이것도 놔버려라. 그냥 무심으로 이것을 내가 입어야겠다 하면은 그냥 무심으로 입어라 이거지, 누가 그걸 입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 자기안에 해결사가 있으니
> 절대 밖으로 끄달리지 말고
> 주인공을 믿고 맡겨놓아요

그렇게 거기서 벗어나야지, 만약에 좋은 것, 좋은 소리 이런 것만 자꾸 갖다 보면은 그게 육도 윤회에 걸린다 이거죠. 육도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기 지구 바깥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아, 나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지구 바깥을 벗어납니까? 그래서 죽는다 안 죽는다 이런 게 생사 윤회에 걸리지 않는다, 이건 자유인이다 이겁니다. 걸리지 않는다 이럴 수도 없고 걸린다 이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건 걸리지 않는다 이 소리밖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 대로니까. 여기서 내가 또 다시 태어날려면 또 다시 여기서 그냥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건데 말입니다.

관하는법 알고 싶어요

문 '삶은 고가 아니다' 책을 보고 혼자 나름대로 주인공을 관하려 하고 있는데 그저 이름으로만 외어지는 느낌입니다. 제대로 관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둘로 보지 않고 관한다, 둘로 보지 않는 게 관하는 거지, 관한다 이러는 거는 내가 사물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모든 것을 용도에 따라서 내가 맡겨놓고 그거를 지켜보는 게 바로 관이야. 예를 들어서, 왜 요새 여기 무엇을 한가지 연구를 해서 다 물질적인 연구라든가 또는 정신적인 연구라든가 어떠한 연구를 한다, 또는 병고가 났다 또 어느 짐승이 지금 죽게 됐다 이런 것도 실험할려면은, 실험할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어? 이거를 한번 한생각 내서 딱 넣어놓고선 지켜볼 때에 그게 관이야.

그러구 모든 것을 이렇게 둥글게 해서는 전체 거기다 맡겨서 놓구 자기가 용도에 따라서 온 거 있으면 거기다가 딱 놓고 지켜보는 거야, 그게 관이야. 그렇지만 주인공과 나를 둘로 보고 '주인공,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가 아니야. '해주십시오' 하면 노예가 돼버려! 자기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기 주인공과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점, 자유스럽다는 점, 자유인이 되고자 해서 우리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부처님께서도 가르킨 것이, 49년 가르킨 것이 바로 그게 자유인이 되라고 한거예요.

자기와 주인공 둘로 보지 않는게 觀

번뇌망상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